

(...2 페이지에 이어) 나가며 펄펄하던 김완선의 몸짓은 고양이와 동물의 비약처럼 날렵하고 자기충족적이었다.

그리고 2020년, 캠프 모자에 노린 트레이닝 슈트(일명 '조교 룩')를 입고 최소한의 몸놀림으로 비트를 타는 댄스곡 '하이 힐즈' 동영상의 김완선을 보면 '양년'이나 '한때' '방부제 미모'라는 말이 얼마나 낡은 언어인 줄 알게 된다. 몽환적인 EDM 댄스곡 '하이 힐즈'는 김완선 31주년 기념 앨범 '디 오리 지널'(The Original) 타이틀 곡에 참여한 작곡가 나심이, 그녀의 몸에 꼭 맞는 사운드 테일러링으로 완성했다.

귀에 레몬즙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 노래 '엘로우'는 밝은 멜로디로 산들거린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발전했다고 느끼나요?

"그럼요. 발전했어요. 발전이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혼자서 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이 겪지만 쌓여가는 게 분명 있어요. 댄스도 그래요. 예전 영상 보면 '저러다 팔 하나 부러지겠다' 싶어. 하하. 그래도 힘든 줄 몰랐으니 신기하죠. 지금은 그만큼 몸이 안 따라 주지만, 또 느끼는 데 잘 표현해요. 내 나이에 맞게, 조금만 움직여도 그루브가 살죠."

김완선의 춤의 뿌리는 깊다. 최승희에게 무용을 가르치고, 학춤, 태평무, 한량무 등을 창시하고 정리한 '한국 근대 춤의 아버지' 한성준이 김완선의 외증조부. 88올림픽 살풀이춤으로 유명한 무형문화재 한영숙은 김완선의 이모다.

조선의 춤꾼 한성준 선생이 정리한 학춤, 한량무, 태평무를 무대 위에서 본 적이 있다. 비선발 하나, 어깨 한쪽만 쓸쩍 들어도 지구의 자전축이 툭 하고 이동하는 것 같았다. 내 몸이 이미 알고 있는 춤을, 내 몸이 기억하는 즐거움에 따라 저항 없이 이동시키는 그 충만한 동작들.

그렇게 구한말부터 이어진 유서 깊은 그루브와 소울이 김완선의 피를 타고 흐르고 있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요즘의 '칼군무'와는 다른 지점에서 해방감을 선물하며.

-댄스 전문가가 당신 춤을 분석하면서 '음악의 바다에서 노는 100% 자연산 몸놀림'이라고 하더군요(웃음). 요즘 같은 트레이닝으로는 탄생할 수 없는 동작들이라고. 리듬감은 유전이라고 느끼죠?

"그 부분에서 감사하죠. 당시에도 그렇게 추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이모(매니저였던 고 한백희)의 트레이닝은 혹독했지만, 실상 별것 없었어요. 그냥 음악

틀고 '취바라'였죠(웃음). 대부분 즉흥적이었어요."

무대에서 김완선의 즉흥은 무질서가 아니라 자족의 극치처럼 보였다. 춤이 그러하듯 삶도 즉흥적이라고 했다.

"즉흥적인 게 가장 나다운 거예요. 나답게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난 기질상 계산이나 계획을 몰라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죠. 마음이 가는 대로. 저도 과거엔 '왜 나는 남들처럼 못살지?' 흉내 내려고 했어요. 비슷하게 살아보려고. 그런데 안 돼. 안 되는 걸 어떡해(웃음). 40대 초반에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2006년에 하와이에 간 것도 즉흥적인 결정이었나요?

"그날 밤, 가방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하와이에서 보낸 첫날 밤이 잊히지 않아요. 친구 집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방을 구해서 나왔어요. 그때 하와이에서 보낸 시간에 제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2006년 가을부터 2년 동안."

-갑자기 훌쩍 떠난 이유가...

"번아웃이 된 거죠. 그해 초, 그러니까 2006년 1월에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미8군에서 공연한 가수이기도 했던 김완선의 이모 한백희. 한국 최초의 여성 매니저였던 그는 인순이를 가수로 발굴했으며, 후에 조카인 김완선을 데뷔 시켜 한국 가요사에 길이 남을 독창적인 음악 신을 만들어낸 여걸이다. 김완선의 모든 것을 지휘했지만, 함께하는 13년 동안 조카에게 활동의 대가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후에 그 자신도 빈털터리로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한백희에게 김완선이 갖는 감정은 안타까움이었다.

-만큼이 교차했군요.

"저와 업계를 이어주는 인연의 끈이 투두둑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해가 또 제가 데뷔한 지 20년이 되던 해였어요. 내가 헤매고 있구나,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구나, 이러다 이 바닥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발이 묶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떠났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죠."

-어떤 시간을 보냈지요?

"나와 내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 생각해도 답은 없고, 뭐가 맞고 틀린 지도 모르겠고... 문제의 답을 찾은 게 아니라, 문제로부터 그냥 해방이 됐어요. 착하지 못하고 동동 떠다니던 제가 드디어 땅에 뿌리가 박혔어요. 앵커(anchor 닷)가 내려진 느낌

이랄까."

-자립이자 자유군요!

"네. 이모와 헤어지고 나서 제가 영화 '쇼생크 탈출'을 읽은 자리에서 5년을 봤어요. 그 주인공이 보낸 세월이 남의 인생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 그 끝에 말은 자유의 냄새..."

-이모의 분신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당시 김완선씨 무대에선 자유로움이 느껴졌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100% 이모가 싫지 않았어요. 저와 생각이 느낌도 비슷했어요. 내 자아가 생기고 나란 사람이 내 것으로 안을 채우고 싶은데, 그걸 억누르니까 답답했던 것 뿐이죠. 기가 센 애가 놀러왔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러다 바보 되면 어떡하지?' 한 거죠. 이모에게 10년간 복종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나왔어요. 그런데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또 짜증이 났던 거죠(웃음)."

바보로 살까, 걱정했다던 그가 지금은 바보로 살아서 좋다고 했다.

-음악에 대한 애정이 깊지요?

"어릴 때부터 훌쩍 빠졌죠. 친가 쪽에서 그림의 유전자들, 외가 쪽에서 춤의 유전자들 받았는데, 음악이 이겼어요. 팝 음악에 푹 빠져 살았죠. 그 뒤로도 음악 말고는 생활 지수가 다 깡통이에요. 이렇게 바보로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하."

그래도 비 오면 피할 곳 있고, 고양이들과 안 굶고 사니 감사하죠. 몇 번 경험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산입에 절대 거미줄 안 친다'는 거(웃음)."

-뇌가 정말 청순하군요!

"맞아요. 저는 뇌가 정말 깨끗해요. MRI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이렇게 깨끗한 뇌는 처음 봅니다! 30대도 이런 뇌는 없어요!" 뇌를 피곤하게 안 하니 혈관도 깨끗하대요. 뇌가 청순한 게 얼마나 좋은데요. 하하."

-언젠가 관객도 몇 명 없는 지방의 허름한 무대에서 당신이 춤추고 노래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좀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짝 웃으며)그게 행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 계셨죠? 전 노래할 수 있다면 어떤 무대라도 좋아요. 어릴 때부터 이모한테 그 교육 하나만큼은 철저히 받았어요. '돈 받고 노래하는 게 프рода, 프로 가수 좋은 무대 나쁜 무대 가리지 않고 최고로 불러야 한다'고요."

지금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미

한창 잘 나갈 때도 지방의 나이트클럽, 스탠드바를 뛰었어요. 차 타고 다니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볼러주면 감사히 달려갔어요. 쓸쓸할 일도 아닌 게 그걸로 또한 계절 먹고 살 수 있었어요(웃음)."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순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많이 해요. 순간 순간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해요. 가장 좋은 친구는 자연이예요. (바깥을 쳐다보며)저렇게 싱그런 나무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바람은 얼마나 시원한지, 구름은 또 얼마나 어여쁘게 흘러가는지... 내야 될 세금 때문에 얼굴에 빗살무늬가 그려졌다가도, 자연을 보면 금세 퍼져요. 하하."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죠?

"엄마요. 낙천적이고 착한 분이세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까, 싶을 만큼.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젤 속 편한 거야. 하하. 편안한 마음이 행복의 주춧돌이죠.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맘 편한 게 최고예요."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해요. 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하면 저는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결혼 안 한 상태로 30대를 맞았을 때는, 저도 불안하고 미래가 기약 없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만큼 살아보니 알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외로움 틈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삶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주눅들지 말라'고, 살아보니 꽤 괜찮아요(웃음)."

-자신이 언제 자랑스러운가요?

"어릴 때는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이모에게 '왜 더 잘하지 못하느냐'고 꾸중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못하겠다' 항상 나를 괴롭혔어요. 이젠 안 그래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떻게 다 잘해?" "이만하면 됐지"예요.

지금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미

래에 행복해지겠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엉뚱한 곳에서 발버둥 치지 않고, 지금 행복해지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결심한 내가 자랑스러워요."

그 깨달음을 하와이에서 얻었다고 했다. 그 이후 삶을 다르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이후의 삶은 방향이 없다고.

-평상심이 잘 유지되나요?

"일상에서 정보를 줄이려고 노력해요. 마음 같아선 스마트폰도 없애버리고 싶어. 정보를 차단해야 나한테 집중할 수 있어요. 자극이 많으면 산만해서 내 인생, 내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잠시 침묵하다)전 늘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을 가까이 하니 평소에 어디에 가치를 둘까가 선명해져요. 다른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을 재밌게 살자는 거죠."

-17살 시절로 돌아가도 가수로 살고 싶은가요?

"그럼요. 다만 스타일은 좀 다르게. 가수라는 직업이 정말 행복한 직업이예요. 노래할 때도 행복하고, 내 노래 들으면서도 행복하고 관객과 교감하면 또 행복해요."

-한편 연습 과정은 또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어요.

"어휴~, 어떻게 공짜로 그 행복을 누리겠어요(웃음)."

-공짜는 없죠. 조용필이 모든 생활을 절제해서 오직 음악에만 몰입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자기 관리를 위해 다른 욕망을 포기하는 편인가요?

"(고개를 흔들며)아니요. 음악을 사랑하지만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예요. 저는 제 생활과 행복도 소중해요. 일이 있으면 하고, 없을 땐 마음껏 일상을 즐겨요. 스트레스가 몰려와도 빨리 포기하고 잊으려고 노력하면서요."

-변화무쌍한 가요계에서 오랫동안 완성도를 유지하며 커리어를 이어간 비결은 뭘죠?

"(골똘히 생각하다)일찍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14살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이 길이 내 길이야" 결심을 했을까요? 이모가 "너는 가수가 천직이다" 할 땐 반항도 했지만... 사실 다른 길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반응 없어도 남 눈치 안 보고, 1인

기획사 만들어서 계속 가는 거죠. 하하하."

늘 깨어있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고 했다.

-주로 어떤 음악을 듣나요?

"어린 시절엔 퀸, 이글스, 키크림슨을 좋아했어요. 지금 들어도 너무 좋죠. 요즘엔 아침에 눈 뜨면 제 노래 '엘로우'를 들어요. 30년 넘게 노래했지만, 눈뜨자마자 내 노래 듣는 건 처음이야. 하하. 요 며칠간은 정미조의 '귀로'라는 곡도 듣고, 빌리 아일리시도 듣고, 스웨덴 가수 닐스 란드그렌이 리메이크한 'I will survive'도 들어요. 경계 없이 모든 장르의 곡을 다 들어요"

-문득 궁금해져요. 김완선에게 최고의 가수는 누구지요?

"김추자 선배님이예요. 그분은 자유 그 자체죠. 그렇게 표현하는 가수는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최근엔 제일 많이 듣는 가수는 에이미와 인하우스예요. 그 친구도 그 자유로움이 정말 멋있어요."

-자유가 가장 중요하군요!

"자유는 제게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마지막으로 묻지요. 춤추는게 여전히 행복한가요?

"한번 취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음악 틀어놓고 혼자 눈감고 취보세요. 공간 속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그게 춤이예요.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행복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예요. 음악 속에 푹 잠겨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죠."

한번 사는 인생, 자기들 들들 북치 말고 춤추듯 살라고 했다. 스파클링 워터 같은 웃음이 분무 되고 또 한번 김완선이라는 무지개가 떠올랐다.

계승처럼 눈으로 하이톤의 성량을 고압 송출하던 소녀도 좋았지만, 33년 동안 자유로운 톤 앤 매너로 무르익은 50대의 김완선은 더욱 좋았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춤추며 콘서트를 하겠다는 김완선. 구름 속의 빠처럼, 나무를 흔드는 바람처럼, 은발의 댄스퀸은 얼마나 더 청순할까.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춤'이라는 사실을 그녀를 보며 즐겁게 깨닫는다.



▲ '빠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2019)'. 에버랜드와 할로윈 기념으로 만든 세련된 뮤직비디오.

당신에 대한 아름다운 추모는 현재의 삶만큼 중요합니다.

Pre-planning으로, 당신의 뜻 대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는 재정적 준비뿐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 입니다.

이 중요한 첫 단계를 Eden Brook과 함께 Eden Brook은 최근 캘거리 한인회와 Arbor Alliances Program을 통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저희 전문 카운슬러들에게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Corinne Wiebe T. 403-973-9051

Eden Brook Memorial Gardens & Funeral Home
by Arbor Memorial

17th Ave SW & Lower Springbank Rd, Calgary
T. 403-217-3700 www.edenbrookcemetery.ca

Arbor Memorial